

-(으)ㄴ/는 양

가장·시늉 — 마치 ~인 것처럼, ~인 체

어떤 것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. 양은 ‘모양, 태도’라는 뜻이며, 다음 표현의 문어적 대응 표현입니다: -(으)ㄴ/는 척하다.

■ 결합 방법

상황	형태	예
동사, 현재	-는 양	알다 → 아는 양
완료된 동작	-(으)ㄴ 양	못 들은 양
형용사	-(으)ㄴ 양	태연한 양
가장하기	-(으)ㄴ/는 양하다	못 들은 양했다
ㄹ로 끝남	ㄹ 탈락	만들다 → 만드는 양
구어 표현	-는 척하다	아는 척했어요

■ 언제 쓰나요

형태는 관형형 체계를 따릅니다: 동사는 -는 양, 형용사와 완료된 동작은 -(으)ㄴ 양. ㄹ로 끝나는 어간은 ㄹ이 탈락하며, 양은 명사이므로 띄어 씁니다.

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. 동사 앞에서 방식을 나타내는 말로 쓰입니다: 모든 것을 아는 양 말했다. 그리고 하다가 함께 쓰여 다음 뜻이 됩니다: ~인 체하다: 못 들은 양했다.

비유는 대개 사실이 아니며, 관찰하는 시선은 은근히 비판적입니다. 그 사람이 꾸며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.

문어적인 표현입니다. 말할 때는 -는 척하다와 -는 듯이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.

■ 예문

- 1 그는 모든 것을 아는 양 말했다.
- 2 내 말은 못 들은 양 고개를 돌렸다.
- 3 아무 일도 없었던 양 태연히 앉아 있었다.
- 4 처음 보는 양 물건을 이리저리 살폈다.
- 5 직접 만드는 양 손을 놀렸지만 사실은 아니었다.
- 6 그 사람은 끝까지 모르는 양했다.

■ 비교

-(으)ㄴ/는 척하다
뜻은 같고 말투가 다릅니다. 척하다는 일상적이고, 양하다는 서사적인 글에 어울립니다.
모르는 척했어요. (구어) / 모르는 양했다. (문어)

-(으)ㄴ/는 듯이
뜻이는 가장이 없어도 되는 비유를 나타내고, 양은 그 사람이 일부러 꾸며 낸다는 뜻을 함축합니다.
아는 듯이 말했다. (아는 것처럼 말했다) / 아는 양 말했다. (아는 체하며 말했다)

-(으)ㄴ/는 모양이다
헛갈리기 쉬운 말입니다. 모양이라는 사실에 대한 추측이고, 양은 누군가가 꾸며 내는 행동을 묘사합니다.
아는 모양이다. (아는 것 같다) / 아는 양했다. (아는 체했다)

■ 주의

- ✗ 직접 만드는 양 손을 놀렸다.
- 직접 만드는 양 손을 놀렸다.
ㄹ로 끝나는 어간은 관형형 체계 전반에서처럼 -는 앞에서 ㄹ이 탈락합니다.
- ✗ 비가 오는 양이다.
- 비가 오는 모양이다.
어떤 것이 사실이라고 추측할 때는 모양이다를 씁니다. 양은 가장을 나타냅니다.
- ✗ 야, 개 모르는 양했어.
- 야, 개 모르는 척했어.
양하다는 문어적입니다. 대화에서는 척하다가 자연스럽습니다.